

# 청년기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 결과기대, 금주 자신감과 의 관계

김경희<sup>1)</sup> · 김종임<sup>2)</sup> · 김종성<sup>3)</sup> · 전현숙<sup>4)</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기의 음주는 대부분 친교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서, 자신의 알코올에 대한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Yang et al., 2003)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청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의 음주율은 85.9%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30~40대 성인의 음주율 80.7% 보다 높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이시기는 다양한 선·후배의 친목모임과 신입생 환영회 등을 통한 대학생활을 통해 강제적인 음주행위가 이루어지며 폭탄주, 내림술, 잔 돌리기 등 건전하지 못한 음주행위가 보편화되어 지고 있어(Jeon, 2006), 이들에 대한 건전한 음주를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습관 차원의 음주문화 형성이 요구된다.

이들의 음주는 단순히 사교적인 음주의 범위를 벗어난, 무절제한 행동양상을 띠고 있으며, 신체 건강상의 문제, 학업의 수행이나 정신건강, 또는 일상적인 적응문제 뿐만 아니라 음주 후 원치 않는 불쾌한 경험과 사망사고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Chun, Son, Song, Jeong, & Lee, 2003). 또한 음주자들은 타인에게 음주로 인해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Wechsler & Nelson, 2001) 위험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흡연행동, 큰 사고 경험, 자살시도 등에서 매우 높은 교차위험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음주하

었던 음주정도가 많을수록 암 등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두드러지게 높아, 음주의 정도가 심할수록 질병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Chun et al., 2003). 나아가 건강위험요인에 있어 음주가 차지하는 질병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크다(Lee, 2004).

특히, 청년기 초기인 대학생활을 통해 형성된 음주 행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미 특정한 음주 습관이 형성되면 음주와 건강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어도 바로 절주나 금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수정이 어렵기 때문에(Lee & Lee, 2002) 청년기의 음주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관리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음주 행동의 원인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며, 단일한 원인이기보다는 심리 사회학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Lee, Chung, Shin, & Kim, 2001). 즉 청년기 대학생의 음주행위는 신체적 요인(신체적 증상, 지각된 건강상태), 인지적요인(음주동기, 긍정적 음주결과기대, 부정적 음주결과기대,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 심리적 요인(새로운 경험추구적 성격, 위해 회피적 성격, 스트레스, 분노), 사회적 요인(친구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빈도,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 인간관계) 등과 관련 있으며(Jeon, 2006), 사회적인 허용도 및 강권하는 음주 문화 또한 문제음주에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Lee et al., 2001). 따라서 신체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주요어 : 음주, 신체적 고통

- 1)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jikim@cnu.ac.kr)
- 3)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4) 대전보건의대학 간호과 교수

접수일: 2008년 10월 9일 1차 수정일: 2009년 1월 1일 2차 수정일: 2009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12일

청년기의 폭음은 한 번 술을 마시면 계속해서 마시게 되는 통제력 상실 음주의 형태로,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술을 마실 것인지 마시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금주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주자신감은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다(Kho, 2006). 이렇듯 금주자신감이 높으면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낮아져,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음주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사회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청년기에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많이 경험하고 음주로 인한 결과가 좋지 않다고 기대한다면 음주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기 대학생의 음주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음주 실태와 음주 행동(Armeli, Todd, Conner, & Tennen, 2008; Kim, 2007; Kim, Kim, Kim, & Kim, 2007; Kim, 2005; Ryu, 2006) 및 인지적 요인인 음주동기(LaBrie, Hummer, & Pedersen, 2007; Jeon, 2006; Park, 2005) 또는 음주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Kho, 2006; Lee, 2007; Turrissi, Wiersma, & Hughes, 2000)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음주로 인한 건강 측면에서의 신체적 고통과 그 결과에 대한 경험에 따른 음주에 대한 기대 및 음주 유혹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지적 측면의 금주자신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고통, 음주결과기대 및 금주자신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대학생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 결과기대, 금주 자신감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를 고취시키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결과 기대 및 금주 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결과 기대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주 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결과 기대 및 금주 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용어 정의**

- 신체적 고통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음주를 한 후 음주로 인하여 유발된 신체적 불편감이나 고통을 의미하며(Lee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음주결과 기대**

음주가 어떤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는 Annis (1985)의 음주 결과기대 척도로 측정된 음주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정도를 말한다.

● **금주 자신감**

고위험 음주상황에서 금주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금주 자기효능척도(DiClemente, Carbonari, Montgomery, & Hughes, 1994)로 측정된 금주에 대한 자신감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청년기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결과기대, 금주 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의 1개 4년제 대학의 남녀재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자, 2)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각 학년별 남녀 20-25명씩 골고루 분포되도록 편의표출로 총 195명이 모집되었으나 모든 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19명을 제외한 174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를 한 후 음주로 인하여 유발된 신체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1)에서 사용한 6문항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도구를 사용하였다. 음주로 인한 구토나 위경련, 심계항진, 연하의 어려움, 설사, 두통, 등교나 조퇴 등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통정도를 4점 평정척도로 하고 아니오(1점)에서 5회 이상(4점)까지이고 최저 6점에서 최고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높

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69 이었다.

● 음주 결과기대

음주가 어떤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된 Annis (1985)의 음주 결과기대 척도 중 알코올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에 대한 긍정적 기대문항 23개로, Kim (199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구성되어 최저 0점에서 최고 6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Kim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93 이었다.

● 금주 자신감

금주 자신감은 음주유혹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DiClemente 등(1994)의 금주 자기효능척도로 측정된 점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금주 자기효능척도를 Kim(199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자신없음’ 0점에 ‘매우 자신있음’ 4점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금주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Kim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91 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D시의 1개 4년제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인 연구보조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충분히 설문내용을 숙지하

게 교육하였다. 그 후 연구보조원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대학생들에게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 받은 후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중간고사와 기말시험을 제외하고 동년 8월 30일까지 학년별로 남녀 각각 20-2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을 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결과기대, 금주 자신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하였다. 신체적 고통, 음주결과기대, 금주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74명으로 남학생이 95명(54.6%), 여학생이 79명(45.4%)이었으며, 연령은 20세-23세가 115명으로 66.1%였다. 종교적 특성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89명이었고, 동아리 활동이 있는 대상자는 120명(69%)이었다. 주거형태는 자가 97명(55.7%), 자취가 45명(25.9%)순이었다. 음주빈도에서는 월 2-4회가 76명(43.8%)로 가장 많았고, 월 9회 이상도 25명(14.4%)이었다. 음주량에서는 소주 5잔-7잔이 82명(47.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95(54.6)	Drinking frequency	≤1 time /month	38(21.8)
	Female	79(45.4)		2-4 times /month	76(43.8)
Age	<20 years	5( 2.9)		5-8 times /month	35(20.1)
	20~23 years	115(66.1)		≥9 times /month	25(14.4)
	≥24 years	54(31.0)	Drinking capacity	≤1 glass of Soju	26(14.9)
Religion	Yes	89(51.1)		2-4 glasses of Soju	28(16.1)
	No	85(48.9)		5-7 glasses of Soju	82(47.2)
Group activity	Yes	120(69.0)		≥8 glasses of Soju	38(21.8)
	No	54(31.0)	Excessive drinking experience	Yes	160(92.0)
Residence	Own house	97(55.7)		No	2( 1.1)
	Boarding house	13( 7.5)		No response	12( 6.9)
	Cooking food for oneself	45(25.9)	Intention to stop drinking	Yes	48(27.6)
	Dormitory	15( 8.6)		No	120(69.0)
	Others	4( 2.3)		No response	6( 3.4)
Cause of excessive drinking	Wet in drinking party atmosphere	149(85.6)			
	Like alcohol beverage	8( 4.6)			
	No response	17( 9.8)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92% 이었다. 과도한 음주의 원인은 술자리분위기에 취해서가 149명(85.6%)이었으며, 금주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금주생각이 없음이 120명(69%)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 결과기대 및 금주 자신감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평균 9.0점이었고, 음주 결과기대는 평균 26.6점, 금주 자신감은 평균 50.27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t=-3.257, p=.001$ )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740, p=0.004$ ). 또한 주거형

태( $F=3.808, p=.005$ ), 음주빈도( $F=4.910, p=.003$ ), 음주용량( $F=5.214, p=.002$ ) 및 금주 생각 여부( $t=-2.956, p=.004$ )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연령이 24세 이상보다 20-23세 그룹에서, 자취생보다는 하숙생에게서 신체적 고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달에 한번 이하로 술을 마시는 그룹에서 한 달에 9회 이상 술을 마시는 그룹보다 신체적 고통이 높고, 한번에 소주 1잔 이하로 마시는 그룹이 소주 8잔 이상을 마시는 그룹보다 신체적 고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 그룹 활동, 과도한 음주경험, 과도한 음주의 원인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결과기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결과기대 차이는 Table 3와 같다. 음주 결과기대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3.004, p=.003$ ), 음주빈도( $F=12.853, p=.000$ ) 및 음주용량( $F=20.629, p=.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Table 2. Physiological Stress-related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Category	Physiological stress		t or F	p	(Scheffe)
	M	SD			
Gender	Male	8.62	1.59	-3.257	.001*
	Female	9.46	1.83		
Age	<20 years	9.40	1.14	5.740	.004*
	20~23 years <sup>a</sup>	9.29	1.83		
	≥24 years <sup>b</sup>	8.35	1.44		
Religion	Yes	8.84	1.82	-1.256	.211
	No	9.17	1.67		
Group activity	Yes	9.14	1.66	1.529	.128
	No	8.70	1.91		
Residence	Own House	9.09	1.75	3.808	.005*
	Boarding house <sup>a</sup>	10.30	1.43		
	Cooking food for oneself <sup>b</sup>	8.35	1.76		
	Dormitory	9.06	1.48		
	Others	9.75	0.95		
Drinking frequency	≤1 time/month <sup>a</sup>	9.68	2.01	4.910	.003*
	2-4 times/month	8.90	1.65		
	5-8 times/month	9.17	1.61		
	≥9 times/month <sup>b</sup>	8.04	1.38		
Drinking capacity	≤1 glass of Soju <sup>a</sup>	10.15	1.80	5.214	.002*
	2-4 glasses of Soju	9.10	1.74		
	5-7 glasses of Soju <sup>b</sup>	8.65	1.65		
	≥8 glasses of Soju	8.89	1.65		
Excessive drinking experience	Yes	8.95	1.74	-1.252	.212
	No	10.50	0.70		
Cause of excessive drinking	Wet in drinking party atmosphere	8.83	1.65	0.135	.893
	Like alcohol beverage	8.75	2.12		
Intention to stop drinking	Yes	8.33	1.65	-2.956	.004
	No	9.18	1.71		

\* means Scheffe's test

Table 3. Drinking Outcome Expectanc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Category		Drinking outcome expectancy		t or F	P	(Scheffe)
		M	SD			
Gender	Male	29.17	12.27	3.004	.003*	
	Female	23.54	12.37			
Age	<20 years	29.40	4.27	0.410	.664	
	20~23 years	26.03	12.70			
	≥24 years	27.61	12.94			
Religion	Yes	25.41	12.92	-1.293	.198	
	No	27.88	12.20			
Group activity	Yes	26.69	12.75	0.110	.912	
	No	26.46	12.36			
Residence	Own house	27.54	12.78	2.069	.087	
	Boarding house	22.38	13.61			
	Cooking food for oneself	28.48	11.03			
	Dormitory	19.40	13.63			
	others	24.00	10.16			
Drinking frequency	≤1 time /month <sup>a</sup>	16.73	14.68	12.853	.000**	a<b
	2-4 times /month <sup>b</sup>	28.11	9.98			
	5-8 times /month <sup>b</sup>	30.17	8.92			
	≥9 times /month <sup>b</sup>	32.12	13.27			
Drinking capacity	≤1 glass of Soju <sup>a</sup>	11.84	12.30	20.629	.000**	a<b
	2-4 glasses of Soju <sup>b</sup>	26.57	7.55			
	5-7 glasses of Soju <sup>b</sup>	28.56	10.41			
	≥8 glasses of Soju <sup>b</sup>	32.57	12.76			
Excessive drinking experience	Yes	26.70	12.17	-0.496	.620	
	No	31.00	8.48			
Cause of excessive drinking	Wet in drinking party atmosphere	27.65	11.57	-0.858	.392	
	Like alcohol beverage	31.37	17.90			
Intention to stop drinking	Yes	27.18	11.91	0.073	.948	
	No	27.03	12.57			

\* means Scheffe's test

보였다. 이를 사후검정 한 결과, 음주빈도에 있어서는 월 1회 이하 음주 그룹이 월 2회 이상의 다른 그룹보다 음주 결과기대가 낮았으며, 한 번에 소주 1잔 이하로 마시는 그룹에서 소주 2잔 이상을 마시는 다른 그룹보다 음주 결과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종교유무, 동아리 활동, 주거형태, 과도한 음주경험, 과도한 음주의 원인, 금주생각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주자신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주 자신감 차이는 Table 4와 같다. 금주 자신감은 음주빈도(F=10.488, p=.002)와 음주용량(F=12.808,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음주빈도에 있어 월 1회 이하 음주 그룹이 월 2회 이상의 다른 그룹보다 금주 자신감이 높았으며, 음주량에 있어서는 한 번에 소주 1잔 이하로 마시는 그룹에서 소주 2잔 이상을 마시는 다른 그룹보다 금주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 종교유무, 동아

리 활동, 주거형태, 지각된 과도한 음주경험, 과도한 음주의 원인, 금주생각의 여부에 따른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결과 기대, 금주 자신감과의 상관관계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금주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321, p=.000), 신체적 고통과 음주결과 기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r=-.353, p=.000). 금주 자신감과 음주 결과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87, p=.000)(Table 5).

## 논 의

청년기의 음주는 무절제한 행동양상을 띠며, 음주 후 후회할 일을 하거나,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경우가 많고, 수업에 결석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잦은 음주와 폭음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한다

Table 4.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Category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t or F	P	Scheffe
		M	SD			
Gender	Male	48.30	13.89	-1.878	.062	
	Female	52.62	16.49			
Age	<20 years	49.80	13.14	0.704	.496	
	20~23 years	49.33	15.95			
	≥24 years	52.31	13.83			
Religion	Yes	49.67	16.38	-0.527	.599	
	No	50.89	14.01			
Group activity	Yes	50.39	14.83	0.156	.876	
	No	50.00	16.25			
Residence	Own house	50.45	15.95	0.068	.991	
	Boarding house	51.53	13.87			
	Cooking food for oneself	49.35	14.10			
	Dormitory	50.53	18.18			
	Others	51.00	2.16			
Drinking frequency	≤1 time /month <sup>a</sup>	60.05	19.26	10.488	.000*	a>b
	2-4 times /month <sup>b</sup>	50.59	13.45			
	5-8 times /month <sup>b</sup>	44.11	10.26			
	≥9 times /month <sup>b</sup>	43.04	11.23			
Drinking capacity	≤1 glass of Soju <sup>a</sup>	65.03	19.33	12.808	.000*	a>b
	2-4 glasses of Soju <sup>b</sup>	50.60	13.26			
	5-7 glasses of Soju <sup>b</sup>	48.30	12.07			
	≥8 glasses of Soju <sup>b</sup>	44.15	13.62			
Perceived excessive drinking experience	Yes	49.70	15.17	0.388	.699	
	No	45.50	21.92			
Cause of excessive drinking	Wet in drinking party atmosphere	49.02	14.12	-0.458	.647	
	Like alcohol beverage	51.37	14.81			
Intention to stop drinking	Yes	48.37	15.27	-0.556	.579	
	No	49.77	14.50			

\* means Scheffe's test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hysiological Stress,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Drinking Outcome Expectancy

(N=174)

Category	Physiological stress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Drinking outcome expectancy
Physiological stress	1	.312 (.000)	-.353 (.000)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1	-.387 (.000)
Drinking outcome expectancy			1

(Chun et al., 2003).

본 연구결과에서도 과도한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60명(92%)으로 나타나 음주가 가벼운 건강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79.9%가 대학교에 들어온 후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기 시작했으며 선·후배 친목모임, 신입생 환영회 등의 본격적인 대학생활에 적응하면서 시작되므로(Chun, Lee, Lee, Song, & Jeong, 2002) 이들의 음주행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월 5회 이상의 음주 빈도를 보이는 학생도 34.5%로 나타나 일주일에 2-3회 이상을

음주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30%이상으로 보고한 Lee 등(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들에게 있어 술을 마시는 것은 생활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를 하는 대학생에게 금주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금주생각이 없음이 120명(69%), 금주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48명(27.6%)으로, 이들 청년시기의 문제음주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며, 적합한 절주홍보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역시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Chun et al., 2002).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 음주가 있는 대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의 문제 음주나 알코올 관련 장애의 위험에 놓일 수 있고(Lee, 2007), 이미 특정한 음주 습관이 형성되면 음주와 건강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어도 바로 절주나 금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수정이 어렵기 때문에(Lee & Lee, 2002), 잘못된 건강습관이 확립되기 전에 체계적인 음주교육을 통한 건강행위 수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정도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고통이 신체증상 자체보다 신체에 대한 음주의 효과를 견디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Li & Rosenblood, 1994), 남자에게 더 허용적인 음주문화 속에 음주경험과 음주량이 더 많은 남학생(Kho, 2006; Kim et al., 2007)에게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신체적 고통이 더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신체적 고통이 심하며 평상시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적은 대상자가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많은 대상자 보다 신체적 고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술에 익숙하지 못할수록 즉, 음주에 노출이 적고 문제성 음주의 경험이 적을수록 신체적 고통이 크다고 보겠다. 본 연구에서 자취생들이 가장 신체적 고통이 낮았고 하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거주 분포가 다르고 하숙생이 전체 대상자의 13명(7.5%)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재확인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주생각이 있는 사람이 신체적 고통이 적게 보고된 것은 금주를 하기에 앞서 음주를 줄여나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음주에 따른 신체적 고통이 적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의 음주문화가 입학과 동시에 허용되며 강권하는 분위기 속에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신체적 고통에 빈번하게 노출되지만, 이에 적응해가면서, 신체적 고통에 대한 표현 또한 둔화되어(Lee et al., 2001), 신체적 고통이 줄었다고 인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폭음과 문제성 음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으므로 청년기 초기에 절주나 금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음주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동아리 활동이 있는 대상자가 신체적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청년기의 대학생들은 선·후배의 친목모임 및 신입생 환영회 등 대학생활의 시작과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사적인 모임도 자주 갖는 대학생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동료집단 활동이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음주로 인한 경미한 신체적 고통이라도 이를 통해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청년기 초기에 동료집단을 중심으로 절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신체적 고통은 금주생각을 하는 사람이 안하는 사람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금주

를 생각하는 사람은 음주를 하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소량 마시기 때문에 신체적 고통이 적은 것 같으나 이러한 부분도 절주나 금주교육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결과기대와 금주 자신감은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음주량이 적을수록 음주에 대한 결과기대는 낮았으나 금주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Skutle(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금주에 대한 자신감이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더 잘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라는 연구결과(Connor, Young, Williams, & Ricciardelli, 2000; Hasking & Oei, 2002)와도 일맥상통한다. 음주에 대한 결정은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와 음주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을 기대하여, 정서적인 과정과 이성적인 과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Ryu, 2006) 청소년들의 음주 효과기대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친구의 압력이고 폭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친구의 음주행위로, 젊은이의 음주결정에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크고(Kim, 2005), 잦은 음주와 많은 음주량의 노출은 그만큼 금주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대학생들에게 절주나 금주에 대한 교육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조기에 실시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금주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음주 결과기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금주 자신감과 음주 결과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고통이 크면 금주 자신감이 크고, 신체적 고통이 심하면 음주 결과기대는 낮고, 특정 상황에서 음주를 통제할 수 있는 금주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결과기대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로부터 심리적 기대가 높은 사람이 더 낮은 금주 자기효능감을 보인다(Kho, 2006)는 결과와 유사하나,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은 대학 신입생들에게서 폭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기억상실, 숙취 증상의 경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한 결과(Turrisi et al., 2000)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청년기 대학생의 신체적 고통 정도의 변화 및 음주 결과기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주생각이 없는 사람이 69% 이므로 음주와 같은 건강 위험행동이 사회화 시기 동안 고착된 습관이 되기 쉽고, 아직 이 시기에 적합한 적절한 음주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잘못된 음주행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 될 뿐만

아니라 행동수정이 어려운 경우 가 많기 때문에(Lee, & Lee, 2002), 잘못된 건강습관이 확립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음주폐해에 관한 교육을 통한 건강행위의 수정을 통하여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올바른 행동변화를 고착시키는 전략개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기의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음주 결과기대 및 금주 자신감 정도 및 관계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설계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연구대상은 편의추출 된 대학생 174명이고, 자료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 대상자의 월 2-4회가 43.7 %로 가장 많았고 음주량은 소주 5잔-7잔이 47.2%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92% 가 과도한 음주경험이 있었으며 과도한 음주의 원인은 '술자리분위기에 취해서'가 85.6%이었고 금주생각이 없음이 69%이었다.
-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성별, 연령, 주거 형태, 음주빈도, 음주량 및 금주 생각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음주 결과기대는 성별, 음주빈도 및 음주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검정 한 결과, 음주빈도가 적은 경우에 음주 결과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주 자신감은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적은 경우에 금주 자신감이 높았다.
- 음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금주 자신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신체적 고통과 음주결과 기대, 금주 자신감과 음주 결과 기대는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이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교적인 동기로 술에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술에 익숙해지고, 문체성 음주로 이어질수록 신체적인 고통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고통과 금주 자신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이들에게 음주관련 프로그램은 입학과 동시에 음주에 대한 노출이 적은시기에 이루어져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신체적 고통을 포함한 건강위험 요인으로서의 음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음주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학생 174명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 확대의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nnis, H. M. (1985). *Outcome expectancies questionnaire*. In Letteri, D. J., Nelson, J. E., & Sayers, M. A. (eds.). *Alcoholism treatment assessment research instruments* (pp.36-39). MD: NIAAA.
- Armeli, S., Todd, M., Conner, T. S., & Tennen, H. (2008). Drinking to cope with negative moods and the immediacy of drinking within the weekly cycl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9(2), 313-322.
- Chun, S. S., Lee, J. R., Lee, Y. P., Song, C. H., & Jeong, J. H. (2002). *Operation and evaluation of prevention programs for problem drinking in the university*. Report of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Chun, S. S., Son, A. R., Song, C. H., Jeong, J. H., & Lee, J. R. (2003). *Survey of the college students' binge drinking and development of the alcohol control policies*. Report of Ministry of Healthy & Welfare.
- Connor, J. P., Young, R. M.,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2000). Drinking restraint versus alcohol expectancies: Which is the better indicator of alcohol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2), 352-359.
- DiClemente, C. C., Carbonari, J. P., Montgomery, R. P., & Hughes, S. O.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2), 141-148.
- Hasking, P. A., & Oei, T. P. S. (2002).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coping resources in predicting alcohol consumption in community and clinical sample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0(5), 465-494.
- Jeon, S. J. (2006). *Physical, cognitive,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nfluencing alcohol consuming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Kho, Y. M. (2006). *The relationship among drinking restrain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I., Kim, J. S., Kim, K. H., & Kim, J. S. (2007). Influences of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and motives for drinking on drinking permissive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4(3), 382-390.
- Kim, S. J. (1996). *Modeling relapse of alcoholism-male alcoholic in-patients of psychiatric war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S. Y. (2005). *Analysis on factors that affect drinking effect expectation and binge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Y. B. (2007). *The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y on drin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 LaBrie, J. W., Hummer, J. F., & Pedersen, E. R. (2007).



- Reasons for drinking in the college student context: The differential role and risk of the social motivato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8(3), 393-398.
- Lee, H. I. (2007). *The effects of motivational intervention program on social anxiety, alcohol expectancy, abstinence self-efficacy, and problematic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 Lee, J. J., & Lee, C. W. (2002). Youth risk behavior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3), 51-72.
- Lee, J. K. (2004). *Measuring the burden of diseases due to alcohol consump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E., Chung, I. W., Shin, C. J., & Kim, H. (2001). *Prospective study of effect on the genetic, psychologic factors of behavior of alcohol drinking changes*, Report of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Li, H. Z., & Rosenblood, L. (1994).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alcohol consumption patterns among Chinese and Caucasia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4), 427-433.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2006 Social statistics research*.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Park, K. M. (2005). *Examin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to explain drinking behaviors drinking motivation and desire to drink: Focused on stress, coping style, social support, and alcohol-outcome expecta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 Ryu, M. (2006). *Effects of sociocognitive factors on binge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Skutle, A. (1999).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xpectancies, severity of alcohol abuse, an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drinking. *Addictive Behaviors*, 24(1), 87-98.
- Turrisi, R., Wiersma, K. A., & Hughes, K. K. (2000). Binge-drinking-related consequences in college students: Role of drinking beliefs and mother-teen communication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4), 342-355.
- Wechsler, H., & Nelson, T. F. (2001). Binge drinking and the American college student: What's five drink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287-291.
- Yang, S., Park, H. R., Sohng, K. Y., Kim, N. C., Jo, S. J., & Moon, J. S. (2003). High school students' alcohol use and 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3), 319-328.

## Correlation Study on Physiological Stress from Drinking,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in Youths

Kim, Kyung-Hee<sup>1)</sup> · Kim, Jong Im<sup>2)</sup> · Kim, Jong Sung<sup>3)</sup> · Jeon, Hyen Sook<sup>4)</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4)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distress from drinking,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in youth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74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enroll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August, 2005.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 12.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hysical distress from drinking according to gender, age, residence, drinking frequency and drinking capac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by drinking frequency and drinking capac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rinking outcome expectancy according to gender, drinking frequency and drinking capacity. The physical distress from drinking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 $r=.312$ ,  $p=.000$ )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drinking outcome expectancy ( $r=-.353$ ,  $p=.000$ ).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drinking outcome expectancy ( $r=-.387$ ,  $p=.000$ ). **Conclusion:** There were relationships among physical distress from drinking,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and drinking outcome expectancy. These findings provide the basis to prevent problems of drinking by developing alcohol control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Alcohol drinking, Physiological stres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ong Im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Munwha 1 Dong,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9 Fax: 82-42-584-8915 E-mail: jikim@cnu.ac.kr